

주제회의
장애

장애인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실태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팀 연구위원]

I. 한국 장애인소득보장 구조

-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장애인의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한 1~3차 안전망의 소득 보전 급여체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1차 안전망은 사회보험제도로써 대표적으로 근로 기간 중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불충분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입 중 혹은 근로 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로 인한 산재보험을 들 수 있음
 - 2차 안전망은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이 대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의 역할을 함
 - 3차 안전망은 공공부조 방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에 대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 짐,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2010년 장애인연금 시행
 -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의 급여로서 기초 장애인연금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
 - 장애인연금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 기초연금과 동일한 체계로 개편 및 확장
 - 목표 수급률 70% 설정되고, 급여 수준도 기초연금과 같이 인상
- 특히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을 운영하고 있음
 - 장애 소득 상실 보전급여 구성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23,180원(2023년 기준)
 - 장애 추가 비용 보전급여 구성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 원~8만 원(65세 미만), 4만 원~403,180원(65세 이상)

3층	개인연금 및 저축 등		개인이 장애나 질병에 대비한 개인연금	
1차 안전망 (2층)	(산재보험) 장애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 장애가 있을 때 보상	
2차 안전망 (1층)	(국민연금) 장애연금		소득활동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한 보상	
3차 안전망 (0층)	[소득보전급여]	[추가비용급여]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예방 최저생활보장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장애인연금(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구분	신재장애 위험	일반장애위험		목적
	근로자	자영자	비경활인구 (15세 이상 63%)	

II. 한국의 현 소득보장제도의 문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 빈곤율 격차 지속, 장애로 인한 추가급여 증가,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추가급여 편차 확대 등 장애인 경제적 위험도 증대
 - 2021년 기준 장애인 빈곤율은 39.4%로 비장애인 빈곤율 14.1%에 비해 약 2.5배 높으며, 동 격차는 고착화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 중심의 소득 보장체계의 구조에 따른 장애 정도별 빈곤 격차 심화
 - 즉 장애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장애인소득보장 영역의 공적 이전 급여는 장애인연금 이 대표적이나, 현행 1~2급, 3급(중복) 정책대상자로서 그 외의 장애인은 빈곤의 위험에 놓임
- 장애 유형별 연령별 요구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현 급여 수준의 적절성 문제
 - 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게 발생하지 않은 추가적인 생활비용이 발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소득이 있을지라도 삶의 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이선우, 2009)
 - 장애인 근로소득(개인)은 월평균 43.5만 원('17)에서 40.7만 원('20)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은 월평균 12만 원('17)에서 15만 원('20)으로 증가함
 -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은 2011년 이후로 큰 차이를 보일 만큼 금액의 증가가 높지 않으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급여인 부가급여는 8만 원으로 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15만 원)의 절반 수준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

Ⅲ. 장애인 가구 경제실태

1. 가구 순자산

- 2022년 장애인 가구의 순자산은 38,677만 원, 부채는 5,024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3,653만 원임
 - 장애인 가구 순자산은 비장애인의 71.8% 수준이며, 자산은 68.5% 수준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표〉 가구의 순자산

(단위: 만 원)

구분		순자산 ²⁾	자산	부채
2022 ¹⁾	전체	45,602	54,772	9,170
	장애인 가구	33,653	38,677	5,024
	비장애인 가구	46,843	56,442	9,600
2021 ¹⁾	전체 가구	41,452	50,253	8,801
	장애인 가구	32,796	38,658	5,862
	비장애인 가구	42,425	51,557	9,132
2020 ¹⁾	전체 가구	36,287	44,543	8,256
	장애인 가구	29,381	34,997	5,616
	비장애인 가구	37,071	45,627	8,556
2019 ¹⁾	전체	35,281	43,191	7,910
	장애인 가구	27,830	32,671	4,841
	비장애인 가구	36,153	44,423	8,270

주:

1) 조사 실시 연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말 기준임

2) 순자산=자산-부채

자료: 조უნ화 외(2023). 장애인 소득 및 빈곤 불평등 지표

2. 가구소득

- 2021년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4,546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6,608만 원의 68.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경상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평균(연도별)

(단위: 만 원)

구분		경상소득	시장소득 ¹⁾	가처분소득 ²⁾
2021	전체	6,414	5,641	5,440
	장애인 가구	4,546	3,433	4,024
	비장애인 가구	6,608	5,870	5,587
2020	전체	6,125	5,341	5,196
	장애인 가구	4,557	3,455	4,029
	비장애인 가구	6,301	5,553	5,327
2019	전체	5,924	5,270	5,019
	장애인 가구	4,246	3,280	3,732
	비장애인 가구	6,115	5,496	5,165
2018	전체	5,828	5,231	4,929
	장애인가구	4,153	3,294	3,650
	비장애인가구	6,024	5,458	5,078

주:

1)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2)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3) 음수는 0으로 치환하여 계산함

자료: 조윤화 외(2023). 장애인 소득 및 빈곤불평등 지표

- 소득원천별로 보면, 2021년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2,267만 원으로 장애인 가구 총 소득의 49.9%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4,318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총소득의 67.3%로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17.4%p 낮음
- 반면 장애인 가구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2.0%로 비장애인 가구 8.7%의 약 3배 이상 높아,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및 구성비(연도별)

(단위: 만 원, %)

구분		평균			구성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전체 가구	가구소득	6,414	6,125	5,924	100.0	100.0	100.0
	근로소득	4,125	3,855	3,791	64.3	62.9	64.0
	사업소득	1,160	1,135	1,151	18.1	18.5	19.4
	재산소득	426	432	417	6.6	7.1	7.0
	공적이전소득	600	602	457	9.4	9.8	7.7
	사적이전소득	103	101	107	1.6	1.6	1.8
	중앙값	5,022	4,836	4,652	-	-	-
장애인 가구	가구소득	4,546	4,557	4,246	100.0	100.0	100.0
	근로소득	2,267	2,266	2,091	49.9	49.7	49.3
	사업소득	794	781	794	17.5	17.1	18.7
	재산소득	337	394	379	7.4	8.6	8.9
	공적이전소득	999	984	831	22.0	21.6	19.6
	사적이전소득	148	133	150	3.3	2.9	3.5
	중앙값	3,330	3,177	2,910	-	-	-
비장애인 가구	가구소득	6,608	6,301	6,115	100.0	100.0	100.0
	근로소득	4,318	4,033	3,984	67.3	64.0	65.2
	사업소득	1,198	1,175	1,192	18.7	18.6	19.5
	재산소득	435	437	422	6.8	6.9	6.9
	공적이전소득	559	559	415	8.7	8.9	6.8
	사적이전소득	98	97	103	1.5	1.5	1.7
	중앙값	5,221	5,001	4,871	-	-	-

주:

1) 가구소득은 경상소득임

2)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 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의미함

자료: 조운화 외(2023). 장애인 소득 및 빈곤 불평등 지표

Ⅳ. 장애인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실태

1. 빈곤 수준

□ 전체 현황

- 2021년 장애인 빈곤율(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은 39.4%로 비장애인 빈곤율 14.1%에 비해 약 2.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빈곤율(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은 2018년 41.5%에서 2021년까지 39.4%로 2.1%p 감소한 반면, 비장애인은 2018년 15.6%에서 2020년 14.1%로 약 1.5%p 감소함

〈표 Ⅲ-1-4〉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 갭 비율

(단위: 만 원, %)

구분		균등화시장소득			균등화가처분소득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 갭 비율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 갭 비율
2021	전체	3,207	21.1	10.7	3,171	15.1	4.9
	장애인	1,281	56.1	37.0	1,940	39.4	13.3
	비장애인	3,278	19.6	9.6	3,223	14.1	4.5
2020	전체	3,018	21.5	10.7	2,998	15.3	4.6
	장애인	1,278	54.8	36.4	1,871	39.7	12.2
	비장애인	3,081	20.1	9.6	3,038	14.3	4.3
2019	전체	2,970	21.4	10.9	2,875	16.3	5.4
	장애인	1,175	56.0	36.4	1,715	42.2	14.0
	비장애인	3,024	19.9	9.8	2,920	15.2	5.0
2018	전체	2,875	21.0	10.4	2,756	16.7	5.7
	장애인	1,245	54.6	35.1	1,674	41.5	15.2
	비장애인	2,923	19.6	9.4	2,798	15.6	5.3

주:

- 1) 본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용 MD로 작성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재산소득에 이자 비용 차감 여부)
- 2)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 4)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였으며, 빈곤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5) 소득은 균등화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조윤화 외(2023). 장애인 소득 및 빈곤불평등 지표

- 연령층별 빈곤율을 보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두 집단 모두 65세 이상 빈곤율이 근로 연령층에 비해 높음
 - 근로연령층(18~65세) 대의 장애인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0.1%, 비장애인은 9.9%로 장애인이 약 3배 높음
 - 65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은 50.0%로 비장애인 36.2%에 비해 약 1.4배 높음
- 반면 소득보장제도로 인한 개선 효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 근로연령층(18~65세) 대에 비해 65세 이상 집단에서의 개선 효과가 큼
 - 근로연령층(18~65세) 대의 빈곤 개선 효과는 장애인의 경우, 12.0%p로 비장애인 2%p에 비해 6배 이상 높으며, 65세 이상은 장애인 21.4p%, 비장애인 22.0p%로 유사함

〈표〉 근로연령층 및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전체				근로연령층(18~ 65세)				은퇴연령층(65세이상)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
시장소득	21.1	56.1	19.6	36.5	13.4	42.1	12.5	29.6	57.9	71.4	56.2	15.2
처분가능소득	15.1	39.4	14.1	25.3	10.4	30.1	9.9	20.2	37.7	50.0	36.2	13.8
개선효과	6.0	16.7	5.5	11.2	3.0	12.0	2.6	9.4	20.2	21.4	20.0	1.4

주: 개선 효과: 시장소득 - 처분가능소득

자료: 조운화 외(2023). 장애인 소득 및 빈곤불평등 지표

- 특히, 근로연령층 대를 분해해 보면,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일하는 시기인 30~40대 장애인 빈곤율은 27.6%~ 30.3%로 비장애인 8.7%~9.4에 비해 매우 높음
 - 또한 장애인은 50대~70대에도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50대 이후부터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빈곤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70대에 들어가면서 급속히 빈곤해지는 모습을 보임

〈표〉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2021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

구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8.8	9.0	9.8	11.2	17.7	45.4
장애인	17.6	27.6	30.3	28.9	37.8	53.2
비장애인	8.7	8.7	9.4	10.6	16.2	44.3
차이	8.9	18.9	20.9	18.3	21.6	8.9

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함

□ 장애 특성별 현황

- 장애 정도별 빈곤율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비해 빈곤율이 약 3.3%p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지원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소득을 통한 빈곤율을 보면, 중증장애인은 59.0%의 빈곤율을 보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56.0%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3%p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소득보장정책 이후에는 이와 달리 경증장애인의 빈곤율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남
 - 동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장애정도별 및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전체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5세이상)			
	전체	중증	경증	차이	전체	중증	경증	차이	전체	중증	경증	차이
시장소득	32.6	59.0	56.0	3.0	45.0	55.9	36.9	19.0	70.5	70.0	70.7	-0.7
처분가능소득	27.1	40.3	43.6	-3.3	32.9	36.6	30.2	6.4	52.8	49.4	53.8	-4.4
개선효과	5.5	18.8	12.5	-	12.1	19.3	6.7	-	17.8	20.5	16.9	-

주: 본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임(2020년 기준)

- 장애 유형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빈곤율이 57.2%로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뇌전증 54.9%, 청각 49.8%순임
 - 특히 정신장애인의 고용률(15세 이상, 2022년 상반기 기준)은 13.2%로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아 정신장애인의 생활고를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정신장애인의 약 70%가 3급에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연금 수급(1~2급, 3급 중복)에서 제외됨으로써 더욱 공적 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구분	전체				근로연령층(18~65세)				은퇴연령층(65세 이상)			
	전체	중증	경증	차이	전체	중증	경증	차이	전체	중증	경증	차이
간	33.1	44.8	32.5	12.3	32.2	45.1	31.5	13.6	36.6	42.9	36.2	6.7
뇌병변	44.9	41.5	48.9	-7.4	40.0	37.5	43.0	-5.5	50.6	46.6	54.9	-8.3
뇌전증	54.9	48.2	57.2	-9.0	54.9	48.6	56.9	-8.3	66.5	70.3	65.4	4.9
시각	41.4	43.4	41.0	2.4	30.0	33.8	29.2	4.6	52.6	51.6	52.8	-1.2
신장	37.2	39.2	31.9	7.3	31.3	32.5	29.2	3.3	47.3	47.6	45.1	2.4
심장	31.8	33.1	27.0	6.1	27.3	27.9	25.9	1.9	39.1	39.9	32.6	7.3
안면	32.5	32.2	32.8	-0.7	28.3	28.9	27.7	1.1	44.5	42.0	47.4	-5.3
언어	38.2	41.9	34.9	7.0	36.8	39.7	34.3	5.4	49.5	48.5	51.2	-2.8
자폐성	22.5	22.5			20.3	20.3						
장루요루	48.2	49.3	48.1	1.2	36.8	41.4	36.3	5.1	53.2	53.5	53.2	0.3
정신	57.4	57.4			57.2	57.2			59.6	59.6		
지적	33.8	33.8			33.8	33.8			53.5	53.5		
지체	41.1	33.9	41.4	-7.5	29.9	33.4	29.0	4.4	52.0	48.5	52.7	-4.2
청각	49.8	41.7	52.2	-10.5	29.3	27.7	30.5	-2.8	55.9	52.2	56.6	-4.4
호흡기	46.4	46.8	33.5	13.2	41.8	42.2	33.3	8.9	48.7	48.9	34.0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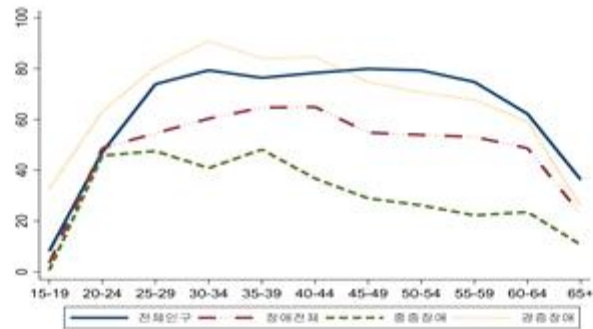
주: 본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임(2020년 기준)

□ 장애인 빈곤 수준과 고용률과의 관계

- 전체 인구의 경제 활동 인구 비율, 고용률은 50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구는 40대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임(최승훈 외, 2022)
 - 특히 중장년층의 장애 인구의 경제 활동 인구 비율과 고용률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인구보다 빠른 35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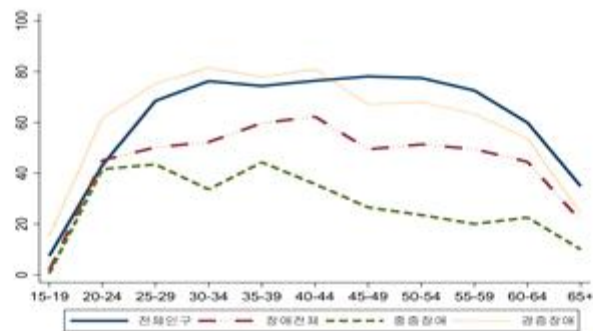
부터 조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선 40대 50대 빈곤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의 주요 근거로 볼 수 있음



〈그림 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자료: 202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재가공



〈그림 2〉 연령별 고용률

자료: 202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재가공

2. 소득불평등 수준

□ 전체 현황

- 장애인구 중 68.7%가 저소득 분위인 1~4분위에 놓인 반면, 비장애 인구는 38.8%가 포함됨.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낮은 소득분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소득불평등 수준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장애인	30.3	16.9	11.8	9.7	6.1	6.0	6.0	5.6	4.3	3.4
비장애인	9.2	9.7	9.9	10.0	10.2	10.2	10.2	10.2	10.3	10.3

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재분석 함

□ 장애 정도별 현황

- 장애 정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59.6%가 저소득 분위인 1~4분위에 포함된 반면, 경증장애인은 57.8%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소득불평등 수준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중증	7.3	16.6	22.8	12.9	9.4	7.8	6.9	6.1	5.5	4.8
경증	10.9	20.7	15.6	10.6	9.2	7.9	7.2	6.6	6.1	5.2

주: 본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임(2020년 기준)

-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저소득 분위인 1~4분위에 정신장애인의 75%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은 뇌전증 68.6% 등의 순임

〈표〉 장애 유형별 소득불평등 수준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간	9.4	13.5	13.7	10.3	9.6	9.0	8.4	8.1	8.1	9.9
뇌병변	8.9	20.4	20.6	11.6	9.1	7.3	6.6	5.6	5.1	4.8
뇌전증	8.8	24.4	26.0	9.4	8.5	7.8	4.7	4.3	3.5	2.6
시각	9.8	18.9	17.0	11.1	9.5	8.2	7.5	6.8	6.1	5.1
신장	7.3	14.9	22.6	12.5	9.1	8.4	6.8	6.4	6.2	5.9
심장	7.6	14.8	14.9	13.7	11.4	8.5	6.5	8.8	6.5	7.3
안면	8.3	13.7	15.3	11.2	10.6	9.2	9.1	8.5	7.8	6.4
언어	8.0	17.1	18.5	11.8	10.5	8.4	8.7	7.5	5.2	4.4
자폐성	7.1	7.1	12.4	11.2	10.4	10.1	10.0	10.5	10.5	10.6
장루요루	11.3	22.6	17.4	10.9	9.7	6.7	6.6	5.4	5.0	4.6
정신	6.9	26.0	30.6	11.6	7.7	5.7	4.3	3.5	2.3	1.5
지적	6.0	11.4	23.5	16.1	11.2	8.7	7.6	6.3	5.3	3.9
지체	10.1	18.9	16.0	10.9	9.3	8.2	7.4	6.9	6.5	5.8
청각	11.6	24.5	18.0	10.5	8.4	6.9	6.2	5.4	4.7	3.7
호흡기	7.9	20.9	24.3	11.6	7.9	5.9	6.1	5.1	4.5	5.7

주: 본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임(2020년 기준)

V.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중증장애인 중심의 소득보전체계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소득보전체계로 단계적 확대 필요
 - 현행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인 1급, 2급 3급 중복의 기준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될 필요
 -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70%가 3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장애수당을 수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인연금의 정책대상자 확대는 빈곤을 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소득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필요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현실화 및 장애 유형별 부족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
 - 현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8만 원으로 장애인실태조사(2020)의 장애로 인한 추가수당 금액 15만 원에 상응한 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필요
 - 단, 장애 유형별, 연령별 추가적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
- ‘찾아가는’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필요
 - 현재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고용 공단 등으로 연계되고 있으나, 지역의 일자리 부족, 교통문제, 수급자 탈락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필요하며, 특히 찾아가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필요
- 소득보장 목적의 급여와 추가지출 수당의 급여의 재편 필요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체계로 구분으로 재편하며, 구성의 재구조화 필요
 - 장기적으로 범주형 장애인소득보장으로의 재편 필요

〈참고문헌〉

조윤화 외(2023). 조윤화 외(2023). 장애인 소득 및 빈곤불평등 지표
조윤화(2022). 장애인 소득 및 빈곤 실태와 정책과제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